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脫)식민주의적 기능 —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 사용

원 영 희
(성균관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정치적이다. 번역의 정치성은 번역의 과정과 결과에 나타나는 원천 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asymmetry)로 드러난다. 원천언어가 정치적 경제적 지배국가의 언어인 경우, 원문의 의미와 언어구조를 최대한 살리는 번역을 하며, 지배를 합리화하는 사상이나 요소를 번역문에서 의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첨가(addition)하기도 한다. 원천언어가 피지배국 언어인 경우, 원래의 의미는 축소되고 원문의 구조도 무시한 번역을 하며 지배국 언어와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피지배국의 섬세한 특성이 생략(omission)되기도 한다. 번역에 나타나는 식민주의는 피지배국 언어를 통사적, 의미적으로 파괴하는 지배국 언어의 횡포로 심화된다.

지리적 경제적 위치와 순위는 문화와 언어의 수준과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 혹은 ‘제3국’(the Third World)이라는 표현 역시, 각 분야에서 열세이며 우선이 아니라는 위치를 가리킨다. 근대 주요 식민지배국이던 현재 소위 열강의 문서는 식민

정책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목표언어로 과잉 혹은 과장 번역되고(over-translate)¹⁾, 반대로 열강의 식민지이던 제3국의 원천언어는 일부 특성만 극대화하여 열강의 목표언어로 제유(synecdoche)적 표현을 하듯이 축소 번역되었다(under-translate)²⁾. 한역(韓譯) 『성경』의 예를 들면, 한국어 독자의 이해 수준을 감안하기보다는 원문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번역하였고, 영어권 문학작품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콘라드의 해양소설 등 거의 모두 영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였다. 물론 문학 번역은 축자역이 좋다. 그러나 축자역의 과정에 발생하는 원천언어 과잉 번역은 최종 결과물로 출판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현대어의 사용상에도 언어의 식민주의는 나타난다. 예를 들면 ‘피그미’(pygmy)같은 단어는 원래 오지(奧地)의 소수민족집단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영한사전 정의에 의하면 ‘무식[무능]한 사람’ 혹은 ‘지력이 저능한 사람’, 영영(English-English) 사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설명이 있다. 이들 정의로는 원래 피그미족(族)의 특성이며, 백과사전이 정의하는 “사회적 계층의 분화는 없고, 평등과 우애가 중시되는 소박하고 단순한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성질이 쾌활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낙천적이다.”라는 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³⁾ 소수민족의 부정적 측면만 극대화되어 열강의 언어권에서 부정적 비유에 쓰이는 단어로 정착이 된 예이다. 피그미족의 실존과 긍정적 특성은 무시된 불균형한 제유적 번역으로 열강의 지배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예이다.

- 1) 여기서 과잉 번역이라 함은 목표언어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소나 표현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기 위해 강제로 첨가하는 번역을 가리킨다.
- 2) 피터 뉴마크는(1998: 80) ‘축소 번역’(under-translation)을 “명확성, 단순성, 때로는 명료성에 대한 관심으로 [원천언어]보다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to use more general words in the interests of clarity, simplicity and sometimes brevity) 번역이라 설명한다.
- 3) *The Britannica Concise*는 “적도 아프리카 인을 가리키며, 기초대사량(basal-metabolism rate)이 세계 최고이고, 겸상(鎌狀) 적혈구성 빈혈(sickle-cell anemia) 발병률이 높은 왜소종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oget's II Thesaurus* 는 “매우 작은, 꼬마의, 난쟁이 나라의”(Extremely small: diminutive, dwarf, Lilliputian, midget) 등으로,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는 “a. An individual of unusually small size. b. An individual considered to be of little or no importance.”로 정의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설명은 찾을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권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영어의 언어적 식민주의 기능의 결과로 지각변동을 겪은 한국어의 현황을 대명사 ‘그’ 사용을 통해 살펴본다.⁴⁾ 영어에는 대명사 사용이 빈발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절제해야 한다는 언어간의 차이를 무시한 번역은 열강의 원천언어가 개도국의 목표언어로 과잉 번역된 좋은 예이다. 참고 본문은 주로 『성경』으로 한다. 그러나 무의미하고 무절제한 ‘그’ 사용이 성경 본문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한 현대의 어떤 번역서에서도 항상 발견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 논문은 우선 언어 식민주의 현상의 하나인 ‘토착어의 주변화 현상’을 번역비평가들의 시각을 빌어 살펴보고, 언어문화를 존중한 번역의 타당성을 찾아본다. ‘그’에 대한 통사적 접근은 번역가의 사명을 탈식민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시도가 된다. 번역과정에서 언어적 식민주의 기능을 탈피하는 번역가의 새로운 사명은 중요하다. 토착언어에 대한 열강 언어의 식민주의적 지배의 결과는 토착언어의 구조적 붕괴와 불필요한 의미 전환을 낳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사용이 절제되거나 사용이 불필요하던 형태소가 번역을 통한 이(異)문화 수입으로 인해 번역 문장 내에서 주요 요소로 역할이 전환 강화되는 현상은 위험하다. 마치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몰아내고 토종 한국 자연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생태의 현상처럼 언어환경 차원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토착언어의 구조적 붕괴는 토착 생태계의 붕괴 현상처럼 철저한 식민(植民)의 형태로 시작되며, 열강에 대한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무조건적 수용으로 인해 토착언어와 문화적 특성 위에 군림하게 된다. 기형적 언어구조에 길들여진 토착민들이 이젠 토착언어의 특성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번역가들이 새로운 사명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식민주의적 번역 자세로 작업을 하기보다는 탈식민적 번역가로 거듭나야한다는 말이다. 한편, 언어적 식민주의에 대한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번역의 정치적 기능과 ‘차이의 윤리’를 인정하면서 세계화 전략이 내포한 위험성을 번역이론에 접목시킨 로렌스 베누티의 『번역에 대한 중상』(*The Scandals of Translation*, 1998)⁵⁾에 많은 부분의

4) 영한 번역문에는 ‘그’ 뿐만 아니라 일인칭 대명사 ‘나’ 사용과 이인칭대명사 ‘너’ 사용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무절제한 대명사 사용은 지나친 원문 형태소 의존으로 인해, 한국어만의 독특한 구조를 붕괴시키며 어색하고 미숙한 문장의 번역서를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존한다.

2. 번역의 정치성: 식민지 토착어의 주변화 현상

베누티는 지난 세기 열강들이 번역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아시아, 카리브 지역, 남미 등지에서 다양한 제국주의 정책을 실현했으며, 이들의 속국들은 외국의 존재에 대한 혹은 대신하는 도구로 번역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1998: 186) 번역에 나타나는 불균형은 원천언어권과 목표언어권의 경제적 현실, 그리고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불균형하의 번역은 지배를 목적으로 수행될 경우 강제성을 띤다. 강대국이나 제국은 종속관계에 있는 나라에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자국민을 이주시켜 식민정책을 펴며, 제국의 언어와 문서는 식민들에 의해 피지배국 언어로 번역되고, 번역물들은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사상과 이념을 미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 현대에도 열강에 대한 제 3국의 위치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늘 종속적이다. 특정 문화의 권위와 번역의 영향력도 지정학적 경제(geopolitical economy)상의 위치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강화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어 사용국가 ‘내(內)’에서는 번역이 푸대접을 받는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유용한 ‘언어 혁신의 원천’(a source of linguistic innovation)으로 환영받는 기현상도 연출된다. 열강들이 번역물을 평가절하 하지만 개도국들이 번역물을 환영하는 이유를 베누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중 언어주의와 문화적 잡종성 증재라 볼 수 있는 번역은 식민적 그리고 탈식민적 상황을 특징짓고, 국민문학을 구축하며 패권국가 언어와 문화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유용한 언어 혁신의 원천이다.

- 5) 베누티는 서론에서 ‘scandal’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옥스퍼드사전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scandal**. A grossly discreditable circumstance, event, or condition of things. *Oxford English Dictionary*”(Venuti, 1998: 1). 즉, ‘스캔들’은 ‘심히 망신스러운 상황이나 결과, 혹은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불명예, 추문, 물의, 중상, 악평, 험담’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근거가 없는 말로 헐뜯어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란 뜻이 있는 ‘중상(申傷)’으로 번역한다.

Translation is seen as a significant intervention into the polylingualism and cultural hybridity that characterize colonial and post-colonial situations, a source of linguistic innovation useful in building national literatures and in resisting the dominance of hegemonic languages and cultures. (187)

따라서 개도국, 제 3국, 혹은 종속문화권에서 번역의 역할은 문화적 언어적 식민주의 합리화의 도구가 되거나 반(反) 패권주의 운동을 위한 탈식민적 도구가 되어 늘 논란의 대상,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관계의 불균형은 정치적 경제적이며 또한 문화적이지만, 개도국에서는 각각 앞을 다투어 목적에 맞추어 번역을 다양하게 사용해 왔고, 제국의 주체인 식민 정부들은 정책적으로 번역을 장려함으로써 번역에 대한 중상을 심화했다.

식민정부는 자신이 생각하는 민족적 인종적 정형에 대한 생각을 피식민지 국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지배를 합리화하는 번역을 통해서 패권을 강화했다.

Colonial governments strengthened their hegemony through translations that were inscribed with the colonizer's image of the colonized, an ethnic or racial stereotype that rationalized domination. (Venuti, 1998: 166)

베누티의 설명처럼 식민지 주민들에게 식민사관을 주입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전면에서 번역은 열강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유용한 도구였다. 문학 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번역의 기능을 활용하여, “외국의 지배를 장려하는 토착 문학 풍토를 창출하기 위해”(1998: 167) 식민정부는 의도적으로 번역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충격으로 받아들여던 제국의 언어와 문화는 시작엔 강제성을 띄지만 차츰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지배국 기독교의 문화, 혹은 세계어(*lingua franca*)로 위치를 잡아가며 안착하고, 피지배국의 토착언어는 공통어와의 갈등 → 공용 → 전용의 단계를 거치며 자연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6천여종에 이르던 전 세계의 언어가 나날이 줄어드는 현상도 특정 언어의 지정학적 경제논리에 의거한 특세의 결과이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영향을 받기 이전엔 중국의 한자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왔다. 개화 이전에는 중국어, 개화기 이후 번역에는 일본어,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며 영어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자발적인 교류

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을 속국(屬國) 혹은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정책의 차원에서 수입됐고, 번역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한국어 화(化) 혹은 외래어로 정착되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영어의 경우는 한자와 일본어의 경우와는 달리 자발적 수용의 경향이 크긴 하다. 그러나, 영한번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내의 영어 어휘 확산 및 구조 전환은 종교적 차원에서 식민 정책의 결과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든지 이들 3개 지배국의 언어는 한국어에 식민되었고, 한글이 창제된 15세기 이후 오늘까지 한국어 정착에 양면적 동기부여, 즉, 공헌과 폐해를 주며 여전히 존재하다.

베누티의 주장처럼 “식민정부는 열강의 지배를 장려하는 문화 토착화를 위해 식민지의 문학을 도구로 사용”하고, 동시에 “번역을 통해 패권을 강화한다.”(167) 지배국의 새로운 언어 정책으로 식민지의 고유언어는 혼란을 겪고 때로는 말살의 과정을 겪는다. 제국의 언어는 강요와 필요에 의해 식민지 고유 언어를 밀어내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며, 출세의 발판이 된다. 번역학 관점에서 볼 때 1930년-5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는 목표언어와 원천언어라는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이미 설정된 피지배자의 언어와 지배자의 언어라는 불균형의 관계, 철저히 불공평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주의 정책적 번역에서는 정당한 상호본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힘의 논리에 의해 원문 의미와 형식이 목표언어의 의미와 형식을 전복시키는 부당한 잣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언어 상호간의 불균형은 번역체 문장이라는 혼혈문체를 피지배국 언어권에 식민한다. 베누티는 이런 혼혈문체는 처음엔 도입(introduction)의 형식을 취하지만 차츰 비식민화(decolonization) 즉, 식민지 토착어의 구조 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단 제국의 힘이 강력하면 할 수록 언어 이식은 활기를 띠고 식민지 토착어는 외래어 수용의 폭을 확대하면서 서서히 주변화한다. 바로 한국어 번역서와 현대 한국어에 무수히 등장하는 유행하는 의식주 문화에 관한 용어들과 영화 및 연예계 언어, 전산기 용어, 의학용어, 학술용어 등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전산기 도입으로 미처 순화되기 전에 통용되고 있는 전산용어는 헤아릴 수도 없다. 동시대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는 『성경』 번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에서 직접 완역 번역한 경우는 극소수이기에 영어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 역사의 본문의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점은 중역(重譯)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사전에 실린 어휘를 분석하면 주변국과 열강의 영향이 한 나라의 언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가 드러난다. 1957년 판 『한글학회큰사전』(전 6권)의 통계에 의하면, 표준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어 어휘 수는 순우리말은 56,115개, 한자어는 81,362개, 외래어는 2,987개로 총 140,464개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비율은 약 60% 정도이다. 그러나 어원상 한자어로 소급되는 경우를 모두 합친다면 70%가 넘으리라는 추정이다. 예를 들면, 괴롭다(<꿈+롭다), 불쌍(<不祥)하다, 부처(<佛體)님, 선비(<先輩), 요(<중세국어 6) 용<褥, ‘이불과 요’의 요), 으레(<依例), 자(<중세국어 잘<尺), (자로)채다(<자이다<중세국어 자히다<잘(尺)+이+다,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저(<중세국어 잘<笛, ‘피리젓대’의 ‘저’)와 같이 고유어처럼 보이는 단어 또는 단어의 일부 형태소가 어원상 한자어로 소급되는 사례를 모두 합하면 한국어 내의 한자어 관련 어휘는 75% 이상이 되리라 본다. 외국어 즉 열강에서 도입된 원천언어는 혼성화(creolization)를 통해 외래어로 혹은 목표언어화하고, 한국어 중에 고유어는 20%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라는 사실은 도입된 원천언어의 득세와 비식민화 혹은 토착화로 목표언어는 세기(世紀)를 달리함에 따라 오히려 주변화(peripheralization)하고 있다는 현실을 증거하는 일례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주변국과 열강의 영향으로 토착어가 상당히 풍요로와 졌다고 할 수 있다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분명 이미 잃어버린 고유어를 모두 되찾아 쓸 수는 없다.⁷⁾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은 지키면서 풍요를 위한 진취성을 살릴 수는 있다. 서서히 안착하고 있는 국내 번역학계가 번역문의 질적 향상에도 절대적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토착어 환경을 파괴하는 원문 지배적인 언어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 상호분문성을 나누는 동등한 위치에서 번역하기를 장려하며, 한국어의 풍요와 정통성을 지키

6) “국어 2천년의 역사”에서 이승재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원시국어(~기원전 1세기, 고대국어(기원전 1세기~10세기 초), 중세국어(10세기 초~16세기말, 고려건국에서 임진왜란), 근대국어(17세기 초~19세기 말), 현대국어(20세기 초~현재)” 등의 5기로 나누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27, 2000).

7) 소설가 정우기는 『살려 쓸 우리말 4500』(1997/93)에서 고유어 4,500 여 개를 정리하며, “민족의 힘은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이라는 사실과 언어가 아니고서는 민족 문화의 맥을 그 무엇으로도 이을 수 없음”을 피력한다.

는 실천적 방향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영한/한영 번역의 발전을 위해 양극적인 번역자세는 조정해야 한다. 지나친 원천언어 중심인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번역 태도나 지나친 모국어 중심으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번역 자세도 피해야 한다. 즉 영한번역의 경우, 분별 없는 영어 원문 전이로 모국어의 어휘나 성분이 상실될 수 있다. 반대로 한영 번역의 경우 의미와 형식의 지나친 평이화(平易化)는 한국 문화를 일반화하여 외국 문학과와의 특성화 차별화에 실패할 수 있다. 문제는 힘의 중심이 항상 강대국 언어, 세계 공용어에 있다는 데 있다. 영한 번역은 영어 구조에 맞게 한국어를 전환하는 한편 한영 번역은 영어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하게 일반화(generalization) 혹은 보편화(universalization)한다면, 영어권 문화는 굴절을 적게 겪는 만큼 한국 독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며 완충시기를 거쳐 외래문화로 정착하고, 서서히 언어표현을 포함한 고유문화의 샘을 말리고 만다. 동시에 영어권 독자를 위해 함축과 은유를 포기하고 일반화한 한영번역으로 한국문화와 문학은 수용자들에게 절제된 충격을 주고, 그만큼 갈등 없이 인식되거나 사실보다 평가 절하된 상태로 이해되고 만다. 한영번역의 경우는 특히 탈식민적 자세로 번역을 하여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낮설더라도 영어번역에서 살려줘야 함은 물론, 영한번역의 경우에도 은유나 강조된 구문 번역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문장구조와 기본 특성을 충분히 살린 번역을 함으로써 소극적, 식민적 번역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은 ‘원천언어 중심이나 목표언어 중심이나?’ 식의 지배논리가 아닌 ‘진실’(truth) 중심이어야 한다. 번역가의 편견이나 환경의 강요에 의한 번역은 진실 번역이 아니라 선전(propaganda)을 위한 번역일 뿐이다. 따라서 베누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번역사업이 다국적기업의 가면을 쓴 신(新)식민주의자(neocolonialist)들의 ‘제3국’ 국민들로부터의 노동력 착취와 시장 갈취를 선두에서 돕고 있는 메체”(1998: 159)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진실의 내용과 진실을 표현한 상호 언어의 형식에 대한 존중 논리가 탈식민주의적 번역학의 입장이라고 본다.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로, 언어를 통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며 지구촌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탈식민적 문화 교류가 번역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거대 원천언어의 힘에 밀려 목표언어의 고유성을 포기하는 번역은 식민주의적 번역 태도이다. 강요와 기회주의적 논리

에 의거한 번역태도는 문화적 패배이며 식민주의적 전근대적인 번역 자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한 번역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 사용 빈발 현상은 강대국의 언어가 종교적 정치적 식민주의를 통해 토착언어 구조의 전환을 초래한 경우이다.

3. 문화적 차이의 인정

원문과 번역문은 나이더(1996/2002: 106)의 고백처럼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각 언어의 차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영어의 언어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영어란 언어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제 2의 전(全)인류어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토착어와 더불어 영어를 말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 인류적 번역어인 영어가 국가적 패권주의, 즉, 영국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주로 미국적 패권주의를 수입하거나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Today the English language is not simply replacing all the languages on earth, but becoming the second universal language. Everyone has to speak his own language plus English[...]. We have to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is universal translator, which is the English language, imports or conveys with it some national hegemony, not England's hegemony, as you know, but mainly American hegemony... (1996).

세계가 나날이 가까워지고 이웃이 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들은 지구촌화가 새로운 제국에 의해 조종될 때, 각 나라의 정체성 부재 현상이 발생한다는 경고이다. 맥도널드(McDonalds) 햄버거, 코카콜라 등으로 위장한 신(新) 제국의 대두를 좀더 빨리 깨닫는 선각자가 되어야 하는 ‘지식인’은 바로 번역가이다. 언젠가 전 세계의 간식(間食) 문화가 햄버거화 할 지라도 바우메르(Elleke Boehmer)의 위로처럼 국가 간에는 ‘같은 표준으로 쥘

수 없는 대상'(incommensurability) 혹은 개념이나 가치가 있긴 하다. 문화간에는 여전히 상호이해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타(他) 문화는 “상징적 신화적 체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바우메르의 설명은 위안이 된다.(Boehmer 1995: 245~7) 90% 이상이 모두 지식인인 번역가는 타문화와 언어를 올바른 모국어의 그릇에 담아내는 노력을 함에 있어 바우메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원천언어의 구조적 요구사항을 목표언어에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며, 두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실한 번역을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영어공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영어열기는 이제 언어적 식민의 성공적 선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부단한 노력으로 공통어와 모국어를 모두 살리는 기적의 선례가 될지는 역사가 가르쳐 주리라 생각한다. 우선은 한국의 전문 번역가들과 번역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식민지적 원문 수용 태도에서 벗어나, 원문에 대한 긍정적 굴절을 통해 보다 모국어 구조에 적합한 번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을 이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그’ 남용의 문제 해부는 중요하다. 원천언어 영어와 목표언어 한국어의 구성상 특성으로 수렴 없이 수용하다보니 이제 번역문뿐만 그 외의 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800년대 영어 원문의 한역(韓譯) 시작 이후 한국어 구조상에 변화를 초래한 3인칭 대명사 ‘그’를 통해, 한 나라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번역의 역기능의 예를 살펴보는 작업은 번역의 탈식민적 기능을 모색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될 것이다. 즉, 식민정책에 의해 수렴 없이 주입된 지배국의 원천언어와 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이제 독립한 피지배국 국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되고 다시 문서화해야 하며, 나아가서 목표언어의 ‘기본’ 원칙과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번역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4. ‘그’의 정체

4.1. 한국어에 ‘그’를 부르는 영어

한국어 ‘그’에 해당하는 영어의 성분은 대부분이 ‘he/his/him, she/her/hers,

it/its, they/their/them' 등의 3인칭 대명사와 정관사 'the'이다.

(예1) Tom calls his(Tom's) mother.

그의 어머니

(예2) ① Tom loves his(Tom's) dog.

그의 개

② And he always goes for a walk with the dog.

그는

그 개

4.2. '그'와 영어의 관계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영어 문장의 경우 동일 명사나 고유명사 반복사용을 자제하는 반면, 3인칭대명사 반복 사용은 허용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예문 (1)의 주어인 Tom을 대신하는 소유격 3인칭대명사 'his' 사용이, 'Tom's' 사용보다 통사적 화용적으로 정확하고, 예문 (2)의 ①에서도 'his dog'은 'Tom's dog'보다 정확하다. 예문 (2)의 ②에서 'he'는 'Tom'을 받는 대명사이며, 탐의 개라는 사실을 한정하는 정관사 'the'를 포함한 보통명사 'dog'은 'his dog' 즉 'Tom's dog'을 가리키며 이상의 반복표현을 피한 표현이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명사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 그리고 정관사의 사용은 일반적인 통사적 규칙이다.

4.3. '그'와 한국어

4.3.1. 20세기 이전 - 영한 번역물 등장 이전

한국어에서 '그'의 통사적 성분은 인칭대명사이며 지시대명사 혹은 관형사이다. 15세기 국어 문법을 정리한 이송녕의 『中世國語文法』(1981)에 의하면 당시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셋으로 나뉜다. 제 1인칭은 '나, 우리, 우리들', 제 2인칭은 '너, 드되, 너리, 너희들', 제 3인칭은 '더, 더희, 더희들'이다. 그러나 이송녕(223)은 “제 3인칭은 본시 고정된 것이 없지만 흔히 '더'로 쓰인다”라고 말하며 제 3인칭 대명사 '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더의 통사적 존재를 불안정하게 본다. 그러나 지시대명사의 기본은 '이, 그, 더'로 근칭(近稱)은 '이', 중칭(中稱)은 '그', 원칭(遠稱)은 '더'를 사용했다고 정리한다.

『개정판 표준중세 국어문법론』(1997)의 저자 고영근은 중세국어의 제 3인칭 대명사도 현대어와 같이 정칭(定稱),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정리하며, ‘흔하지는 않지만 제 3인칭대명사’의 예를 『석보상절』에서 찾는다.⁸⁾ 그러나 고영근 역시 『석보상절』에 나오는 “‘더’가 ‘그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다. 두 국어학자의 정리에 의거한다면, 중세국어문법에서 인칭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 ‘그’의 통사적 가치는 불안정하다는 결론이다.

4.3.2. 20세기 이후 - 영한 번역물 등장 이후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한국어 정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서적은 영한 번역서들이며 그 중에서도 1882년부터 쪽 복음서로 한역(韓譯) 출간되기 시작한 『성경』이다. ‘그’ 사용의 예를 살펴보기 위해 로스(John Ross)목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에 의해 완성된 1887년 한역본인 『예수성교전서』(1887)의 「누가복음」 제3장 38절을 살펴본다.

그 아밤은 인뵈이요 그 아밤은 셋시오 그 아밤은 아담이요 그 아밤은 하
나님이니라 (3:38)

3장 38절은 지시대명사 ‘그’ 사용이 두드러진 문장이며 원본인 헬리어 원문에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했다기보다는 헬리어를 영역한 권위 있는 제임스 왕 흠정역(*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이후로는 AV) 성경과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등을 참고하여 중역한 흔적이 역력하다.⁹⁾ AV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V, 1611/1881]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Luke, 3:38)

8) “○達이 精舍 를 지수려 ㅎ느니 우리 모다 지조를 것교아 더웃 기기면 짓게 ㅎ고 묻
이괴면 묻 짓게 ㅎ야지이다(석보상절 권 6, 26장)”에서 굵은 글씨로 된 ‘더’는 ‘그 사
람’을 뜻한다(86).

9) 헬리어 원문은 23절부터 ‘τοῦ ~[이름]’ 식으로 반복되어 마지막 38절 ‘τοῦ Θεοῦ’,
즉 ‘of God’으로 끝맺음한다. 따라서 제임스 왕 번역은 헬리어 원본의 형식보다는 의
미전달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자 매번 ‘the son’을 첨가한 번역이다.

AV를 직역하면 “(그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그는)에노스는) 세스의 아들이었고, (그는) 아담의 아들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이며, 23절부터 38절까지의 기본 형태가 ‘(그는) ~의 아들이었고’이다. AV는 헬라이어 원문의 형태소에 ‘which was the son’을 반복 첨가하여 의미를 분명히 한 번역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성경전서』(1887)는 같은 부분을 ‘그 아빤은 ~이요’로 번역해, 원문에 AV와도 다른 형태소를 반복 첨가해 번역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한역 성경 번역서의 저본이 AV만은 아니었다는 다른 증거이기도 하며, 헬라이어 원본에도, 영어 역본에도 없는 ‘아빤[아버지]’의 첨가는 목표언어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역의 흔적이기도 하다. 참고로 1911년에 반포된 『구역』으로 정리된 1906년도 판 『신약전서』의 같은 부분은 ‘그 이상은 ~이요’이며, 1952년에 한글철자법에 의한 개정을 거쳐 수정한 1961년 판 『성경전서 개역한글』은 1911년 판과 같은 ‘그 이상은 ~이요’이다. 1988년도 새 ‘한글맞춤법’에 의거해 다시 수정 개역 출간한 1998년 판 『성경전서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그 위는 ~이요’로 번역해, 기존 번역과 상이한 명사 ‘위’를 첨가했다.¹⁰⁾ 이들 번역을 통해 지시대명사 ‘그’의 일관된 사용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누가복음 4장 8절을 AV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AV]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밑줄은 필자의 것임.)

밑줄 친 부분은 AV가 극적인 효과를 살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헬라이어 원문에 없는 형태소를 첨가해 번역한 부분이다. 원문에 보다 가까운 영역으로 『새미국표준어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0/77, 이후로

10) 1998년도 개역개정판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이다. 그러나 이런 첨가 번역과는 달리 1977년 판 공동번역 성경은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 이른다”로, 그리고 1993년 판 표준새번역은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다”로 헬라이어 원문에 근접한 번역을 했다.

NASV)의 같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KCS I

[NASV]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Satan),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밑줄은 필자의 것임.)

한역할 때 3인칭 대명사 ‘그’를 부를 수 있는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하면서 직역해본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이 써있기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한 번역에서 ‘그’를 부르는 대명사 ‘him, it, HIM’ 등을 온전히 살려 번역한 직역이다. 대부분의 현대역에서는 ‘it’는 풀어하기 혹은 생략하기 번역을 하고, 마귀(Satan)를 가리키는 ‘him’은 대부분 생략하고, 공동번역의 경우에 풀어서 ‘악마’라고 번역하며, 『표준새번역』에서만 ‘그에게’로 직역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거의 모든 한역에서 ‘THE LORD YOUR GOD’을 가리키는 ‘HIM’은 원천언어 형태소를 그대로 살려 ‘그’ 혹은 ‘그분’으로 번역하고 있다. 1906년 판 신약전서의 한역문은 다음과 같다.

예수—디답하야 글으샤터 기록호였스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호고 홀노 그를 섬기라 호엿다 하시니 (*밑줄은 필자의 것임.)

20세기 최초의 완역 신약전서에서 이미 3인칭 대명사 ‘그’를 확연히 살려 번역한 예이다. 그러나 1906년도 번역본 이전에 나온 『예수성교전서』(1887)의 같은 부분에 대한 번역문은 위의 번역문들과 차이가 있다.

예수디답하야갈오샤터 글에 일오되 주 너의 하나님께 절호여 호올노 섬기갓다하니 (4:8)

위 한국어 번역문에는 제 3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him, it, HIM’ 중의 어떤 요소도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록된 내용을 가리키는 ‘it’는 ‘is written’과 함께 풀어서 ‘글에 일오되’로 의역하고, 한국어 구조상 꼭 필요하지는 않은 마귀를 가리키는 ‘him’과, 바로 앞에 나온 하나님을 가리키는 ‘HIM’은 생략하

는 식으로 번역을 마무리했다. 3인칭 대명사 사용이 당시 한국어 어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누가복음 같은 장 이후의 구절에 나타나는 영역본 AV 내의 3인칭 대명사와 1887년 판 한역본에 나타난 3인칭대명사 번역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후의 한역본을 1887년 판의 경우와 비교하면 3인칭 대명사 ‘그’ 사용 확산의 시발점을 역추적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자.

[AV]

20 ○ And ①he closed the book, and ②he gave ③it again to the minister,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④them that wer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⑤him.

21 And ⑥he began to say unto ⑦them, This day is this scripture fulfilled in your ears.

22 And ⑧all bare ⑨him witness, and wondered at the gracious words which proceeded out of ⑩his mouth. And ⑪he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23 And ⑫he said unto ⑬them, Ye will surely say un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thyself: whatsoever we have heard done in Capernaum, do also here in thy country.

[개역개정]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AV 영문과 한역 『개역개정본』(1998)을 비교하면 20절과 23절 사이에 3인칭 대명사 ‘그/그들’이 AV에는 총 12회 쓰인 반면, 『개역개정본』은 풀어 번역하기와 생략을 통해, 지시대명사 ‘㉠그’를 제외하고, 전환하여 인칭대명사로 번

역한 ‘㉑그들’을 포함해 4회로 절제하고 있다.¹¹⁾ 1887년도 번역은 과연 어떠한
을까 살펴본다.

- 20 이어 책을 덮어 집사를 주고 안즈니 회당 ④뭇사람이 눈을 들어보는지
라
21 ⑥예수 비르소 같오사디 이글이 오날 너희귀에 응흐였다흐니
22 뭇사람이 간증하고 ⑨그 입으로도 은총의 말 나오물 기히 예겨 같오 디
이 요셉의 아달이 인이나흐니
23 예수 같오사디 너희절노 속담을인흐여니게 말하라 의원이스 서로 곳치
라우리가 빌남에서 헝헝바를 들으니 썩흔 본토에서 헝헝라

초기 한역에서는 위에서처럼 인칭대명사 ‘그’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인칭대명사 ‘he, his, him, they, them’ 등은 같은 명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짧은 한국어 문장 내에 흡수 번역되어 생략(①②③⑧⑩)
하거나, ‘④뭇사람, ⑥예수’이 경우처럼 대신하는 실체를 밝히므로 대명사 사용
을 절약했다. 그리고 ‘⑨그’ 역시 인칭대명사라기보다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1887년도 번역에서는 영어 원문에 있는 3인칭 대명사 ‘그’는 사용
이 극히 제한되고, 사용 확산은 물론 그 보편성도 인정이 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906년도 『신약전서』 누가복음 4장 같은 부분의 경우, 영문의 대
명사 ①②③⑤⑧은 번역문에서 생략하고, ‘④them’은 ‘잇는자들’로, ⑥과 ⑩의
‘he’는 ‘예수가’로, ‘⑦them’은 ‘무리의 게’로 각각 풀어서 번역하고 있다. 예외
적으로 ‘⑫them’은 중세 국어의 흔하지 않은 3인칭 대명사 형태인 ‘더회게’로
번역한다. 이는 20년 전 번역인 『예수성교전서』(1887)에서는 사용 않던 제 3인
칭 대명사를 사용한 분명한 변화이다.

이와 같이 중세와 근대에까지 두드러지지 않던 제 3인칭대명사 ‘그’ 사용은
현대로 오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 3인칭대명사 ‘그’의
무절제한 사용은 서양언어작품 한역작업의 활성화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최초

11) 하지만 이전 번역본인 『개역한글』(1961) 본에서는 22절에서 ‘저희가 다 그를 증거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로 단 2회만 사용하며, 『공동번역』에서는 이례적으로 22
절에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에
서 단 한번 사용하여 번역했다. 공동번역은 지나친 구어체의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
다.

의 서구어 한역서(韓譯書)인 『성경』의 개역과정에 나타나는 ‘그’ 사용의 확대 현상은 경전번역의 원칙상 가능한 원천언어에 충실한 번역인 축자역을 선택한 데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자역(literal translation)이란 단어 대 단어 번역(word-to-word translation)과는 다르다. 단어 대 단어 번역은 목표언어의 구조를 무시한 채 특별한 목적으로, 원문의 각 단어 혹은 어구(語句) 바로 아래에 번역어 혹은 번역 어구를 적어 놓는 ‘행간번역’(interlinear translation)에 적합한 번역 방법이다. 원문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를 위한 번역이다. 그러나 일반에게 적합한 번역은 최소 문장대 문장 번역(sentence-to-sentence translation)부터이다. 1998년 판 『성경전서 개역개정』에서 인칭대명사 ‘그’를 이전 번역과 비교해 확대 사용한 이유는 분명 ‘더욱 원문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이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결과는 언어적 식민주의의 재현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어에서 인칭대명사는 생략하거나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바로 밝히는 표현이 좋다. ‘더욱 원문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이 목표언어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형태소를 첨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오히려 원문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고, 특수한 목적으로 포장했으나 결국은 종교적, 언어적 차원의 식민주의의 재현이며,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목표언어 구조 변화를 강요한 결과가 되었다.

4.3.3. 현재 - 원문 흉내내기의 문제

인칭대명사 ‘그’의 남용은 미숙한 번역가의 번역과 원문 흉내내기에 대한 혼동에서도 기인한다. 초보 번역가들의 초벌 번역은 대부분이 단어대 단어번역에 가까운 직역이다. 다음 인용문은 일반 잡지에 실기 위해 전문가가 번역하여 편집실에 입고한 번역문이다.

“약을 꺼내와야겠어요.” 간호원 한 명이 말했다. ①그녀는 차량 뒤쪽에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②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갔다 올게요.” ③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④그녀가 손을 흔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쏟살같이 차 쪽으로 달려가 의료상자를 찾아들고는 리디아 있는 곳으로 되돌아 왔다. ⑤그녀는 ⑥그 애에게 항독제 주사를 놓았다. “⑦그 애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다.

단문 9개로 구성된 짧은 단락이지만 인칭대명사 ‘그(녀)’가 5번, 지시대명사

‘그’가 2번, 줄친 접속사의 ‘그’까지 합하면 단락 전체가 ‘그’로 가득하다.¹²⁾ 원문을 살펴본다.

“We’ve got to get medicine,” one of the nurses called. ①She knew there was some back in the van. ②She stood up from the dust. “I’ll go,” ③she said. We watched as ④she staggered back, waving ⑤her arms. Darting into the van, ⑥she grabbed a medical kit. ⑦She ran back to Lidia and gave ⑧her a shot of an antihistamine. “I don’t think ⑨she’s going to make it,” someone said.

원문 역시 각 문장이 짧고 내용은 긴박하다. 따라서 위의 번역가는 원문의 형태에 충실한 번역을 한 것이다. 어떤 사건을 고백체로 기록하는 이런 문장은 보통 수필이나 소설에서 만나는 문장이다. 난해하지 않은 문장이며, 오히려 지나친 단문의 나열로 원작가의 표현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특별한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 특징도 없는 내용이며, 원문의 내용적 형태적 특성을 살려 내야만 하는 『성경』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고전작품도 아니고, 규약이나 법칙을 정리한 서류 글도 아니다. 이런 글은 독자의 수준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번역가는 원문의 형태보다는 내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책임이 더 크다. 뉴마크(1998: 70)가 정리하듯이 ‘축자역 혹은 문자역(literal translation)을 번역의 기본 과정’으로 볼 때, 번역의 전제는 원문에 대한 온전한 이해이며,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모두 성실한 번역은 기본이다. 위 한역에서 사용한 대명사는 원천언어인 영어의 구조와 원문의 형태에 충실한 번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불성실한 무성의한 번역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런 원문을 축자역한 문장이 어색하다면(clumsy) 그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75)라고 주장한 뉴마크의 이론을 수용한다면 위 한역 역시 잘못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명사 ‘그’ 사용에 있어서 그렇다. 원문에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로 특히 이 부분만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다수 사용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 이상 목표언

12) 번역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번역 현상은 보편적인 대학 강의실의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원문 문법 중심의 해석 행위는 번역 연습과는 무관하다. 미숙한 번역은 미숙한 모국어 구사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어의 기본적인 특성마저 무시하고 원문을 지나치게 의식해 직역할 경우 오역은 아니더라도 목표언어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앞서 4.3.2.에서는 아직 한국어가 영한번역서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번역된 『예수성경전서』(1887)의 인칭대명사 번역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방법을 참고해서 4.3.3.의 분석 원문을 다시 번역해 본다.

“약을 꺼내와야겠어요.” 승합차 뒤쪽에 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니 “다녀올게요” 하면서 흠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간호사가 팔을 내저으며 승합차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빨리 차 속으로 뛰어들어가 의료상자를 찾아들고 쏟아져 돌아온 간호사는 리더에게 해독제를 주사했다.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다.

『예수성경전서』(1887) 「누가복음」 4장 20절~23절 번역의 경우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3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을 했다. 위의 현대영문 한국어 번역에서도 원문의 3인칭 대명사 ‘그’는 절대 필요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한국어 속에 식민되어 이미 깊이 뿌리내린 3인칭대명사 ‘그’를 한국어 구조 밖으로 완전추방 하기는 불가능하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한번 걸리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면역이 된 성분으로 한국어 구조 속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단지 번역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국어의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이제라도 가능하다. 번역가는 외국문화와 언어를 수입하는 중개자이다. 외국어의 식민현상에 무감한 번역가들로 인해, 또 언어 내적 외적 영향으로 한국어의 주변화는 심화된다. 번역의 건실한 성장은 모국어의 고유성을 지키며 다양한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착함으로 비로소 가능하며 또한 많은 연구와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뉴마크(1998: 82)에 의하면 외국어의 형태와 소리를 단순히 흉내내기 하여 모국어에 전이(transference)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번역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열강의 언어가 모국어에 식민하여 모국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행위이며, 중국에는 지정학적 힘의 논리에 의해 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5. 나가는 말

번역은 지정학적 힘의 논리에 의해 유도될 수 없는 지적인 행위이다. 경제적 제국주의의 도구로 번역이 행해진다면 지구촌 국가와 민족들의 특성과 다양성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희석되고 소멸된다. 한때 번역이 식민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고, 가까운 예로 한국은 일제 식민시대를 거쳐 영어 공용화 추진시대를 겪으며 한국어 구조와 어휘상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좋은 번역은 모국어의 풍요에 기여하지만, 지나친 원천언어 중심의 성의 없는 번역은 모국어를 주변화하며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UNESCO 통계 조사에 의하면 1987년 세계적으로 대략 65,000권의 번역서가 출판되었는데 이 중 50%에 달하는 32,000권의 원문이 영어였다(Venuti, 1998: 160). 물론 20년이 지난 지금은 20%정도 더 증가했으리라 생각한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서의 위치가 나날이 더욱 확고해 지리라 예상한다. 비록 데 캄포스가 주장한 원문 ‘살부’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번역의 탈식민적 자세는 중요하다(Bassnett and Trivedi, 1999: 11-15). 즉, 번역에서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언어에 우열이 있을 수도 없다. 많은 탈식민주의 번역가들이 ‘제3국’의 작품들을 영역하는 작업을 독려하는 경향도 고무적이다. 급변하는 탈식민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번역가의 사명은 세계어와 민족어를 차별 앉으면서 진실을 옮기는 선각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데 있다.

몇몇 인용 본문 분석 결과, 대명사 ‘그’는 영한번역이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보다 해방 전 한국어 번역 작업이 아직 서툰 초기에 오히려 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어와 일어의 문장구조가 아직 한국어 구조에 큰 영향을 주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 글에서는 동일어휘 반복사용을 절제하기 위해 대명사, 대동사를 즐겨 쓰지만, 한국어는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를 밝히거나 필요 없는 경우엔 생략한다. 특히 손위 어른을 칭할 때는 문화적으로 절대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대화체에서는 더욱 금기사항이다. 언어 표현의 금기를 깨는 일은 언어 식민주의적 굴종이다. 힘의 논리에 의한 열강의 구조에 복종이다. 예외로 성경번역에 있어 특히 ‘그’ 사용 반복이 극심한 이유를 개신교 공인 성경번역의 축자역 원칙의 결과라 위로할 수

있겠으나, 경전 번역이라 할지라도 사용역에 따라 ‘축자역’과 ‘문자 대 문자번역’의 차이를 고려한 번역을 해야만 한다. 물론 더 심각한 경우는 대명사 ‘그’를 원칙 없이 남용하고 있는 일반 서적 번역의 경우이다. 대부분 번역 미숙(未熟)으로 인해, 혹은 파운드(Ezra Pound)의 말처럼 ‘언어학적으로 게으른 독자를 위해’(1929: 33) 더 게으르고 무성의한 번역가가 ‘그’를 남용한다. 한국어 문장 구성상 ‘그’는 생략할 수록 혹은 ‘그’가 가리키는 주체를 밝혀 번역할 수록 문장 구조와 의미가 분명해 지는데, 한역(韓譯) 서적의 많은 경우가 번역가의 무분별한 ‘그’사용에 무감하다. 수많은 ‘그’로 인해 한역본 또스토이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은 후 아직까지도 답을 못 얻은 ‘그’의 주체가 수도 없다. 『성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는 ‘그’의 덮개를 이쯤에서 다시 덮으면서, 인칭대명사 ‘그’가 절제된 번역문, 탈식민적 위치에서 올바른 한국어 표현에 충실한 번역문을 창작해낼 많은 번역가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D성경』. 대한성서공회 간, 1998.
 『공동번역성서』. 대한성서공회, 1968/77.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52/1961.
 『성경: 개역』. 조선성서공회, 1938.
 『성경전서: 구역』.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1911.
 『가이드포스트』. 월간 가이드포스트 사 발간, 1997년 5월호.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1996.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1975.
 _____.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 상/하권. 서울. 을유문화사, 1998.
 류대영 외. 『대한성서공회사 I &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원영희. “심각한 ‘그’ 바이러스”. 『타임연구, TIME Plus』 No.94: 86-88, 1999.

- _____. “실무번역”. 『국어문화학교: 번역반』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2000.
- 유진 나이더. 『언어간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송태효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승녕.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 서울. 을유문화사, 1981/61.
- 이승재 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새문사, 2000.
- 정우기. 『살려 쓸 우리말 4500』.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93.
- Bassnett, Susan, & Trivedi, Harish, ed.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9.
- Beard, Adrian. *Texts and Contexts: Introducing Literature and Language Stud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Boehmer, Elleke.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Migrant Metaphors*. Oxford & New York: Oxford UP, 1995.
- Davis, Kathleen. *Deconstruction and Translation*. Manchester and Northampton: St. Jerome Publishing, 2001.
- Derrida, Jacques “Jacques Derrida: Talking Liberties,” Videopaped interview for Oxford Amnesty Lectures, Films for the Humanities. Requoted from Kathleen Davis, *Deconstruction and Translation*(Manchester and Northampton: St. Jerome Publishing, 2001), 1996.
- Good New Bible/Today's English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1992/c1966.
- Huggan, Graham. *The Post-Colonial Exotic: Marketing The Margi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King James Version*. CD, Korean Bible Society, 1611/1998.
- New International Version, CD*, Korean Bible Society, 1979/1998.
- Newmark, Peter.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 London: Prentice Hall, 1998.
- Nida, Eugene A. *The Sociolinguistics of Interlingual Communications*. Editions du Hazard, 1996.
- Pound, Ezra. “Guido’s Relation,” i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26-33, 1929.
- Robinson, Douglas.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

Seton-Watson, Hugh. *The New Imperialism*. London: The Boldley Head, 1961.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Venuti's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397-416, 1992.

Venuti, Lawrence.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_____,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K C I

[Abstract]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Function in Translation:
On the Usage of Korean Pronoun ‘그’(/geu/)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Won, Young H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seeks for a new task of the translator as a postcolonial medium. Translation is political. Venuti insists that translation has been a medium to disclose ‘the asymmetr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y are ‘cultural,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 (1998: 186). The imbalance in translation, if it were intentional, might be a reflec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etween two languages.

The British Empire and the English language covered the entire globe, including colonies in Africa and Asia, but gave them up one by one. A trademark of colonization has been the active employment of a translation policy which helps to rationalize the invasion and promote control of the natives to the residents of the colony. The native vernacular cannot help, then, but go through a forceful shift due to language contact with the language of the colonists, in this case, English. The shift often causes a degradation or destruction of the native language’s original structure and meaning. In recent years the growth of English has been propagated by a new American Empire on the world stage.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under the serious influence of American English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re is still a heavy English presence in both military and civilian arenas. In particular, English is mandatory

at all levels of education and has begun to show influence on the Korean language in a variety of ways. English uses the third person pronouns quite frequently: words like ‘he, she, it and they’ are some of the oldest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However, the equivalent in Korean ‘그’(/geu/) is used in inappropriate situations, colloquially and in literature. Historically or traditionally, personal pronouns have not been frequently used in Korean.

Recently,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n, especially in translated works. This adoption of the English pronominal system into the Korean language results in what many Korean grammarians consider a “vulgar” usage.

A historical comparison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from English shows that progressively, more pronouns were used in translation of the same passages. For example, in Luke 4:20~23, the 1887-translation did not use ‘그’(/geu/) at all, whereas the 1911-version has it once and the 1998 shows four instances. We could meet many more personal pronouns in modern English-Korean translations, which were rarely us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nor in ancient Korean. This evidence of language change is shown in other passages as well, and the increased use of personal pronoun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is staggering, while the pronouns rarely appear in Korean works in the early 20th century nor in ancient Korean. This increased use of ‘그’ (/geu/) shows the linguistic impact that English has had on Korean, and the colonizing influence that it has o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Even though it seems awkward and harsh to use these third person pronouns in Korean, translators persist in using pronouns while writing in Korean without regard to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he original language. Translators are perpetuating the tyranny of linguistic colonization by adopting the structure of a more powerful, American, *lingua franca*.